

다산포럼

새로운 삶, 아름다운 이웃



박진
상지대학교 명예교수

나이 들어 지난 추억과 욕망을 덜어내려는 건 그 빈자리의 주인을 새로운 나로 삼겠다는 희망 때문이다. 손때 묻은 물건 하나하나에 늘 삶의 추억이라는 DNA를 입혀 온 우리들은 비우고 버린다는 행위가 연인과 정을 때는 일처럼 그리 손쉽지 않은 일임을 너무도 잘 안다.

특히 책을 보는 사람의 연구 공간은 바로 그 사람의 정신세계라 더욱 그렇다. 새로운 나란 다른 배움의 길로 들어서는 걸 말한다. 고인들은 '참 나'의 세계를 개척하려면 비움과 겸손을 앞세우라고 권한다. (歸古爲學, 虛心遜志) 덜어내고 비운다는 것은 자기 발견을 위한 준비라, 지난 추억들로 넘치는 공간은 새 삶에 적신호가 켜지고 있다는 암시가 아닐까.

청춘 특·특

고래 싸움에 터지는 새우등

으로 높은 가격 상승률을 보인 경기·인천·대전·청주 등 일부 지역이 지난 6월 투기 과열 규제 지역 지정 이후 상승세가 둔화되면서, 서울 및 수도권 일부 지역의 매수세 및 상승세는 지속됨에 따라 나온 것이다.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서민 및 실수요자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따라 지난 7월 10일 '7·10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주요 목표는 '주택 시장 안정화'이고, 주요 표적은 투기 세력이라고 할 수 있다. 수도권은커녕 광역시를 밝은 지도 얼마 되지 않은 내게 부동산 정책과 그에 관한 이야기는 멀게만 느껴졌다.

그러나 중앙 후 고향을 찾은 나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나와도 무관하지 않은 이야기라는 것을 깨달았다. 나의 고향은 섬이고, 오랜 시간 배를 타고 나오면 조그마한 소도시에 닿게 된다. 하루에 배는 세 번만 다니고, 그마저도 바람이 많이 불거나 파도가 높으면 운항하지 않

는 것이다. (舟)처럼 물결치는 대로 움직이며 어디에도 구속되지 않는, (我心則隨舟而不繫也, 惟水之順而已) 참 자유이다.

더할 나위 없이 부드러운 물도 그 흐름을 거역할 때는 격노한다. '주역'에서는 이러한 양면의 기질에 대해 '겉은 부드럽지만 속은 굳세다'는 감괘로 정의했다. 이런 이유로 흔히 물의 분노를 돌아선 백성의 마음으로 비유하기도 한다.

부드러움과 두려움이 공존하는 물의 속성을 배우려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이다. 이는 누구와도 소통할 나를 꿈꾸기에 그렇다. 부족한 곳은 메워 주고, 만나는 모든 것들을 어루만지며, 수만 년을 그렇게 흘러가는 그 끝없는 사랑을 배우려는 것이다. 품어 주는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침묵의 몸짓으로 깨우쳐 주는 물의 삶이 부럽다.

중국 남북조시대의 역사서인 '남사'(南史)를 보면 송계야(宋季雅)라는 분이 퇴직 후 살 집을 구하는 이야기가 나온다. 그는 당대 최고의 명사였던 여승진(呂僧珍)과 이웃하려고 시세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일천백만 금)을 주고 집을 샀지만, 그 공을 드러내지 않는 모습, 그것이 상선약수의 삶이다. 즉 물 위의 빈 배(虛舟)처럼 물결치는 대로 움직이며 어디에도 구속되지 않는, (我心則隨舟而不繫也, 惟水之順而已) 참 자유이다.

(百萬貫宅, 千萬貫隣)이라고 답했다. 즉, "백만금은 집값이고 천만금은 당시의 이웃 값으로 낸 비용입니다." 여승진의 반응이 궁금해진다. 자신을 인정해 주는 사람이 거금을 들여 이웃하자고 찾아왔으니, 반듯하게 살아온 지난 세월이 입증된 셈 아닌가. 물론 그 후 이 두 사람은 죽을 때까지 좋은 이웃으로 지내며 여생을 마쳤다 한다.

예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는 이와 어울려 사는 환경을 가장 큰 복이라고 여겼다. 이 두 사람의 만남을 두고 세상 사람들은 '꽃의 향은 백 리요, 술의 향은 천 리지만, 사람의 향은 만 리'(花香百里, 酒香千里, 人香萬里)라고 하여 세상 어떤 것과도 견줄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만남이라고 칭송하였다. "덕을 부지런히 닦아 간다면 반드시 알아주는 이웃이 생긴다"(德不孤必有隣)고 했던 공자의 말씀이 떠오르는 일화이다.

새로운 나를 찾아내 물처럼 소통하는 삶을 산다면 다른 사람들의 좋은 이웃이 될 가능성은 그만큼 높아진다. 스스로가 좋은 이웃이 되는 길을 찾아보자. "좋은 사람이 되어야 좋은 사람이 보인다"는 옛 말씀이 새삼스러운 요즘이다.

는 것이다.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지금까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의 각종 세금을 인상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번 7·10 부동산 대책은 다주택자를 겨냥한 세금 인상이 많았다. 현재까지의 부동산 대책은 효과적이지 못했기에 추후 방안으로 보유세 인상이 제시될까 우려스럽다.

만약 보유세가 인상된다면, 도서민들은 섬과 육지를 오가는 불편함을 덜고자 구입한 주택 때문에 세금을 더 내야 해서 부담이 클 것이다. 팔려고 마음 먹어도 살 때보다 내리간 집값과 높아진 양도소득세로 인해 시세 차익은커녕 손해를 감수해야 할 것이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속담이 떠오르는 이유다.

정부가 부동산 규제로 의도치 않게 피해를 보는 교외 지역 및 도서 지역 주민들의 사정도 두루 살펴서 더욱 세심한 정책을 펼쳤으면 한다.

위드 코로나(With Corona)시대, 문화 예술의 힘

은 전 세계에 던져진 숙제이자, 수많은 함의를 담고 있는 매우 시의적절한 용어가 아닐까 싶다. 보통 가계가 어려워지면 생존과 직접 관련이 없는 문화비 지출부터 줄인다. 현재 많은 가정에서 문화비 지출을 줄이는 데서부터 허리를 졸라매고 있다. 모든 분야가 다 어렵겠지만 문화 예술 산업은 이런 이유로 벌써부터 출구 없는 긴 싸움을 치르고 있다.

위드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지역 문화 예술을 위해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코로나 블루'(corona blue) 극복을 위한 발코니 콘서트가 지구 곳곳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열리고 있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문화 예술은 불안과 절망에 힘입어하는 이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위안과 희망을 준다.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예술 백신'인 셈이다.

코로나 위기가 시작된 이후 정부와 지자체는 문화 예술 분야를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들을 마련하여 시행해 왔다. 특히 프리랜서의 비율이 높은 만큼 일자리 창출 사업이 더 많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코로나가 지속되는 동안 끊임없이 문

화 예술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기적인 사업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드라이브 인'(drive-in) 공연과 같이 감염의 위험을 낮추면서도 향유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새로운 형태의 활동을 개발하여 코로나에 지친 시민들을 치유하는 방안을 제안해 본다.

다음으로 비대면(untact) 공연·전시 등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를 확대하여 문화 예술 향유에 목마른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어야 한다. 아시아문화원 정책 자문 회의에 참여해 보니 이미 국립 아시아문화전당에서는 이와 같은 서비스 확대를 준비해 놓고 있었다. 문제는 이와 같은 기획이 코로나 환경에서 지역민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 있는 방법을 구축해 놓고 있는가이다.

먼저, 가상 박물관(미술관)·공연장 등을 만들어 콘텐츠 전체를 실감나게 즐길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 또한 이러한 콘텐츠 제작에 있어서는 디지털 격차가 발생할 수 있기에, 콘텐츠 제작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예술가·단체·기업들을 대상으로 손쉽게 시설·장비·플랫폼을 합리적인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특히 '위드 코로나' 시대에 문화 예술 분야를 대학과 협력한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코로나19가 지속되는 동안, 필자가 일하는 대학에서 다른 시민들과 함께 전시회도 보고 공연도 관람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社說

통합당, 이름뿐만 아니라 행동도 달라져야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이 '국민의힘'을 새 당명으로 결정했다. 이로써 지난 2월 내걸었던 '미래통합당'은 불과 반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보수당 역사에서 최단명 기록이다. 새 당명은 오늘 상임집권위와 내일 전국위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우리나라 보수당은 지금까지 박정희 정권의 공화당, 전두환 정권의 민주정의당, 3당 합당으로 이뤄진 민주자유당, 김영삼 정권이 과거와의 단절을 명분으로 바꾼 신한국당, 그리고 1997년부터 2012년까지 약 15년간 유지되며 민주화 이후 '최장수 정당명'의 기록을 세운 한나라당으로 이어져 왔다.

이후 이명박 정권 임기 후반기에 당시 당 비상대책위원장이던 박근혜가 주도한 당 혁신 작업의 결과물로 새누리당이 탄생했다.

새누리당은 19대 대선을 앞둔 2017년 당명을 자유한국당으로 변경했고 3년 만인 지난 2월 미래통합당으로 개명해 선거

를 치렀으나 역대 최악의 참패 기록을 썼다. 결국 통합당은 이번에 6개월도 못 돼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보수당의 당명 수난사를 보면,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만 벌써 세 번째 간판 교체가 이뤄졌다는 사실을 보면, 그동안 보수 야당이 얼마나 국민으로부터 멀어져 있었는지를 알 수 있다. 김종인 위원장도 "우리 당은 과거에 기록권을 보호하고, 있는 자의 편에 서는 정당으로 인식됐다. 시대 변화에 맞는 국민 의견을 제대로 섭렵해서 적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국민으로부터 거리 두는 정당으로 생각됐다"며 새 당명 결정 배경을 설명하기도 했다.

그러나 과거에 그랬듯이 이름만 바꾼다고 해서 국민의 인식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극우 세력과 단호하게 선을 긋고 생각과 행동을 과감히 바꿔야 한다. 그렇게 해야만 '호박에 줄 그은다고 수박으로 변할 리 없다'는 따위의 말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

'차질 빛는 한전공대 개교' 특별법 절실하다

오는 2022년 3월로 예정된 한전공대 개교에 또다시 빨간불이 켜졌다. 현행법상 정상 개교를 위해서는 1년 전인 내년 2월까지 학교 건물을 확보해야 하는데 지금의 진행 속도로는 그때까지 준공이 어렵기 때문이다.

학교법인 한전공대는 현재 캠퍼스 설계 용역 업체를 선정해 개교에 필수적인 대학본부·강의동·관리시설 등 1단계 3만 1000㎡에 대해 설계를 진행 중이다. 용역 기간은 내년 7월까지다. 그런데 한전 대책은 효과적이지 못했기에 추후 방안으로 보유세 인상이 제시될까 우려스럽다.

만약 보유세가 인상된다면, 도서민들은 섬과 육지를 오가는 불편함을 덜고자 구입한 주택 때문에 세금을 더 내야 해서 부담이 클 것이다. 팔려고 마음 먹어도 살 때보다 내리간 집값과 높아진 양도소득세로 인해 시세 차익은커녕 손해를 감수해야 할 것이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속담이 떠오르는 이유다.

정부가 부동산 규제로 의도치 않게 피해를 보는 교외 지역 및 도서 지역 주민들의 사정도 두루 살펴서 더욱 세심한 정책을 펼쳤으면 한다.

인가에 필요한 최소 2만㎡의 교사(校舍) 면적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한전은 내년 나주 혁신도시에 준공되는 한전 에너지기술연구소(면적 1만 7100㎡)를 임대 교사로 사용하는 한편 나머지는 2900㎡ 이상의 캠퍼스를 조기 착공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건물을 빌려서 개교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 방안을 허용하려면 법을 개정하거나 특별법을 제정해야만 한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신정훈(나주·화순) 의원은 한전공대 정상 개교와 안정적인 대학 운영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담은 특별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발의할 예정이라고 한다.

한전공대 설립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자 국정 과제에 반영된 국가 정책이다. 정치권은 한전공대가 목표한 개교 일정을 차질 없이 이룰 수 있도록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고, 정부도 각종 심의 과정에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無等鼓

가수 이효리가 최근 방송 예능 프로그램에서 자신의 캐릭터 이름으로 '마오'를 언급했다가 곤욕을 치르고 있다. 해당 영상을 시청한 중국 누리꾼들이 과거 중국 정치를 대표했던 마오쩌둥(毛澤東)을 모욕했다며 들고 일어난 것이다. 이들은 이 효리를 비롯해 방송 관계자들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수십만 개의 악플 폭탄을 퍼부었다. 이에 해당 방송국은 해명과 함께 사실상 사과의 글을 올렸고 해당 영상을 삭제했다. 하지만 여전히 여진은 계속되고 있다.

자신들의 정치지도자를 가볍게 언급한 데 대한 중국 누리꾼들의 반

의 교육용 바탕으로 성장한 이들은 정부에 대한 비판적 의견에 무차별적인 공격을 가한다. 이를 두고 지난 1960년 마오쩌둥 시대 홍위병의 환생을 보는 것 같다는 평도 있다.

한 국가의 국민이 자부심과 함께 강한 결집력을 갖는 것은 결코 나쁘지 않다. 하지만 상대를 인정하지 않는 맹목적이고 극단적인 자부심은 사회적 편 가르기를 넘어 결국 국가를 병들게 한다. 배타적 중화주 영상을 삭제했다. 하지만 여전히 여진은 계속되고 있다.

'샤오편홍'

자신들의 정치지도자를 가볍게 언급한 데 대한 중국 누리꾼들의 반

타나 국제적 반중 정서는 이를 반영한다. 40여 년 전에 비해 힘은 수십 배나 커졌지만 아직 성숙하지 않은 중국의 모습에 대한 세계적 평가이기 때문이다. 국제 질서는 힘의 논리에 지배된다고 한다. 일전 맞는 말이다. 하지만 현에 걸맞은 국격이 갖춰지지 않았을 땐 국제사회에서 조롱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웃 나라인 중국이 편협한 민족주의에서 벗어나 대국으로서의 국격을 갖추었으면 한다. /임동욱 선임기자 겸 서울취재본부장

기 고



정성택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아시아문화원 정책자문위원

정형외과 교수가 아시아문화원 정책 자문을 한다는 특이한 이력 때문인지 곧 잘 지역의 문화 예술 산업에 대한 문외가 들어온다. 이번에도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 지역 문화 예술 산업의 대응 방안에 대한 문외를 받았다. 고심 끝에 그동안 주위의 문화 예술 전문가들과 나눴던 의견들을 몇가지 정리해 보는 것으로 그 답을 찾아볼까 한다.

코로나19는 매우 영리한 바이러스다. 우리가 코로나를 상대로 끊임없이 새로운 대응 전략을 생산해 내고 그 효과가 나타날 때쯤이면, 코로나는 어김없이 새롭게 진화해 버린다.

코로나 재확산이 염려되는 이 시점에 '위드 코로나'(With Corona)라는 개념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시 11(광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기사 자곡) (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4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52	체육부 220-0621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42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